



## 코로나19 이후 국제 인구 이동의 특징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 요약

우리나라 인구의 국제순이동은 2009년 이후 내국인의 출국 및 입국자 수가 유사해지면서 외국인의 출입국 동향에 의해 그 추이가 결정되어 왔음. 그러나 팬데믹과 함께 2020년에는 외국인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순유입이 전체 국제 인구 이동을 주도하면서 10만 명 넘는 순유입을 기록함.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에는 외국인 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내국인 출국자도 크게 늘는 등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내국인의 출입국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 국가의 인구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생과 사망과 같은 자연인구 변화와 국경 간 출국과 입국 등에 의한 국제 인구 이동에 의해 결정<sup>1)</sup>된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지속적으로 초과<sup>2)</sup>하는 가운데 2023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10만 명 이상 상회하면서 자연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구의 국제 순이동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감소세가 2021년까지 지속된 후 2022년부터는 순유입으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나 그 수는 장기적으로 5만 명 전후에 그쳐 인구의 자연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단위 : 천 명)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추계 인구 | 51,836 | 51,745 | 51,628 | 51,558 | 51,500 | 51,448 | 51,397 | 51,348 | 51,300 | 51,251 | 51,199 |
| 출생자   | 275    | 261    | 246    | 233    | 234    | 248    | 261    | 274    | 286    | 296    | 305    |
| 사망자   | 308    | 314    | 324    | 334    | 344    | 355    | 365    | 375    | 386    | 397    | 408    |
| 출생-사망 | -33    | -53    | -78    | -101   | -110   | -107   | -104   | -101   | -100   | -101   | -103   |
| 국제순이동 | -58    | -63    | 8      | 43     | 58     | 57     | 55     | 53     | 51     | 49     |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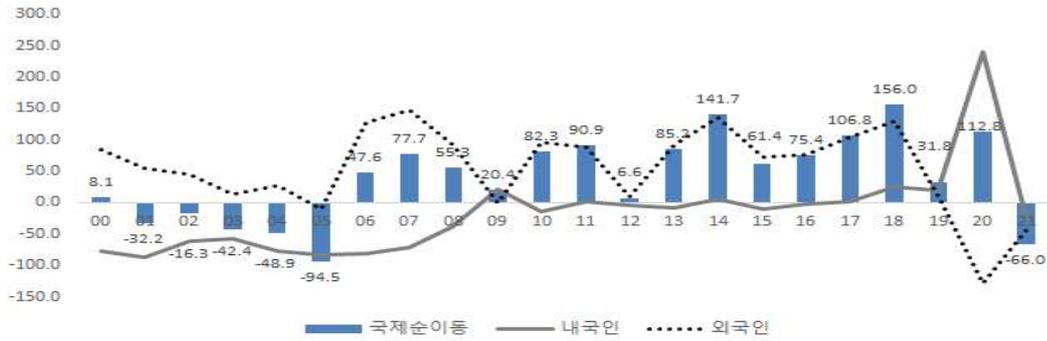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우리나라의 인구의 국제순이동<sup>3)</sup> 규모는 내국인보다는 주로 외국인의 출입국에 따라 결정되어 왔으나, 본고는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특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함

- 1) 미래의 인구를 추계할 때는 인구변동요인을 자연인구 변화와 국제순이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실제 인구 조사는 센서스나 주민등록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하기 때문에 인구변동요인을 구분해서 파악하지 않음
- 2) 우리나라는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 추월하면서 32,611명의 자연인구 감소를 기록하였음
- 3)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상주지를 옮긴 국제이동자를 집계한 것임. 따라서 승무원이나 일반적인 관광객은 포함되지 않으며, 밀입국, 여권위조, 무단하선 등도 포함되지 않으나, 단기비자로 입국 후 90일 초과한 경우는 포함됨

〈그림 1〉 우리나라 인구의 국제순이동 장기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 내국인의 국제인구 이동은 2008년까지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많아 순유출되는 현상을 보여왔으나, 2009년 이후에는 출국자와 입국자의 수가 유사해지면서 국제인구 이동 추이는 사실상 외국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음(그림 1) 참조
  - 이에 따라 2009~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인구의 국제순이동 규모는 사실상 외국인의 국제순이동 규모와 거의 동일한 크기를 보이고 있음

〈표 2〉 최근 국제인구이동 및 인구 관련 통계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1~8월) |             |
|-------------------------|-------------------|--------|--------|--------|--------|--------|------------|-------------|
| 주민등록 연앙인구 <sup>1)</sup> | 51,113            | 51,231 | 51,301 | 51,337 | 51,349 | 51,333 | 51,259     |             |
| 체류외국인 수                 | 2,049             | 2,180  | 2,368  | 2,525  | 2,036  | 1,957  | -          |             |
| 국제순이동                   | 75                | 107    | 156    | 32     | 113    | -66    | 56         |             |
| 내국인                     | 출국자               | 314    | 303    | 297    | 292    | 199    | 213        | 191( 38.22) |
|                         | 입국자               | 312    | 305    | 323    | 311    | 440    | 190        | 138( 1.69)  |
| 외국인                     | 출국자               | 325    | 349    | 365    | 426    | 362    | 263        | 148(-18.23) |
|                         | 입국자 <sup>2)</sup> | 402    | 453    | 495    | 438    | 233    | 221        | 258( 75.73) |
|                         | 유학·일반연수           | 53     | 58     | 69     | 65     | 45     | 64         | -           |
|                         | 단기                | 122    | 174    | 195    | 151    | 58     | 23         | -           |
|                         | 영주·결혼이민 등         | 42     | 42     | 44     | 48     | 42     | 30         | -           |
|                         | 취업                | 128    | 121    | 126    | 114    | 52     | 67         | -           |
|                         | 재외동포              | 52     | 52     | 55     | 53     | 31     | 33         | -           |
| 기타                      | 6                 | 5      | 6      | 7      | 5      | 3      | -          |             |

주: 1) 2022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그 해 전체의 연앙인구임

2) 여행의 목적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파악되는 한계가 있음

3)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 반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내국인의 경우 출국자가 급감하고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20만 명 넘게 순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제순이동은 10만 명이 넘는 순유입<sup>4)</sup>을 기록함(표 2) 참조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의 유출 급증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9년 약 253만 명에서 2020년 약 204만 명, 2021년 약 196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sup>5)</sup> 규모는 자연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약 5,135만 명을 기록하여 2019년의 약 5,134만 명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내국인의 순유입 급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2021년에는 내국인의 유입이 크게 감소(약 44만 명→약 19만 명)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며, 그 결과 2006년 이래 15년간 지속되었던 인구의 순유입이 순유출로 반전됨(〈표 2〉 참조)

○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에는 내국인 출국자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가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순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표 2〉 참조)

- 2022년 1~8월 국제순이동은 내국인 출국자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38.22%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국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75.73%나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5만 6천 명가량 순유입되었음
  - 2022년 인구가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2021년은 2006년 이래 유일하게 인구가 순유출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내국인의 출국은 2020년 입국자들의 재출국과 팬데믹 기간 미루어온 출국 수요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의 입국 증가는 그간 대폭 감소했던 취업 목적과 단기 입국<sup>6)</sup>의 증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이후 인구의 국제이동은 외국인 못지 않게 내국인에서도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내국인의 국제이동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연인구 증가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는 향후 인구의 국제이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
- 2009년 이후 인구의 국제순이동은 외국인의 이동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내국인의 이동이 전체 국제순이동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경우에도 인구의 국제 간 이동은 외국인의 빠른 입국 증가 못지않게 내국인의 출국 증가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이후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의 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내국인의 이동도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파악한 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4) 〈표 1〉의 인구추계는 2020년 국제순이동을 순유출로 보는데, 이는 외국인의 출입국만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5) 해당 해의 1월 1일과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 평균이며, 주민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6) 외국인의 입국 목적 중 '단기'의 경우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를 포함하는 것이며, 〈표 2〉는 그중에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를 집계한 것임